

제6차 대한두경부종양학회

□ 연제초록 □

— 1 —

피부확장기를 이용한 두피재건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정 섬·박 병 윤

피부가 늘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을 이용하여 1976년 Radovan에 의해 현대적인 연부조직확장이 시작되었다. 이 방법은 탈모증의 치료, 유방의 재건, 문신 또는 광범위한 반흔의 제거, 양성종양의 절제 및 합지증이나 소이증의 치료등 최근 성형외과의 여러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근래에 head trauma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두경부에 unstable scar 내지는 wound closure에 종종 어려운점을 겪게된다. 이러한 경우에 조직확장기를 사용함으로 매우 용이하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이의 장점으로는 두피인 경우 고식적인 피부이식 방법으로 초래되는 인위적인 탈모증을 예방 할수 있으며, 미용적인 면에서도 월등한 결과를 얻을수 있을뿐만 아니라 두개골 표면에 골막이 없는 bared bone일 경우에도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재건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근래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교실에서는 조직확장기를 사용한 두경부 재건에 있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2 —

활배근 근피판을 이용한 광범위 두경부조직결손 재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김광현·성명훈·진태훈

두경부영역의 광범위한 수술적 절제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조직결손의 재건 방법 또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결손부위가 크지 않으면 피부이식이나 regional skin flap을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으나 결손 부위가 광범위한 경우는 두경부외과 의사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의 재건술로 많은 종류의 pedicled myocutaneous flap 및 microvascular free flap의 술식이 고안되어 시술되고 있으나 이들 여러방법들은 개개의 장, 단점이 있으며 모든 방법이 각각 적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저자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성행하기 시작한 여러 근피판의 술식중 가장 크고 신뢰할 만한 근피판의 하나인 활배근 근피판을 이용한 두경부 조직결손의 재건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저자들은 진행된 후두암 환자 2례, 측두골 악성종양 1례 및 이개부 피부의 편평상피암 환자 1례에서 활배근 근피판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조직결손을 재건할 수 있었다. 그중 1례에서는 동반된 식도결손을 재건하기 위해 대흉근 근피판을 함께 이용하였다.

— 3 —

두경부병변 치료에 있어서의 CO₂ 레이저 이용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장은열·이명진·홍남표
안희영·차창일

1972년 Jaco와 strong이 후두질환에 CO₂ 레이저를 사용한 이래 최근들어 후두질환은 물론 구강 및 부비동질환등의 두경부 질환의 치료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CO₂ 레이저의 장점은 고식적인 수술방법에 비해 원하는 병변부위를 매우 정확하게 제거하므로 기능보

존이 필요한 미세수술에 유리하며, 수술시야를 방해 받지 않고, 수술이 가능하며, 출혈이 거의 없으며, 종양절제시 종양세포의 전이를 막아 safety margin 확보에 유리하고, 수술후 국소염증반응이 경미하며 2차 치유의 경우 과잉육아형성이 적고 반흔형성이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저자들은 1984년 1월부터 1989년 7월까지 CO₂ 레이저를 이용하여 치료받았던 98예의 두경부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를 통하여 이용된 질환별, 부위별, 사용빈도 및 재수술의 횟수 등을 분석검토함으로써 앞으로 두경부질환의 레이저이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④ —

미주신경내 부신경절종 1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김세현 · 최은창 · 흥원표

두경부에 발생하는 부신경절종(Paraganglioma)는 경동맥체(Carotid body)에 가장 많이 발생하나 그 이외에도 jugular paraganglioma, vagal body tumor 등이 빈도 순으로 발생한다. 미주신경내에 발생하는 부신경절종은 발생위치가 뇌저부에 가까우며 혈관분포가 풍부하고 그 발생이 낮아 술전의 진단 및 수술적 처치에 주의를 요한다.

저자들은 18세 여환에서 좌측 경부에 발생한 3×3×4cm 크기의 미주신경내 부신경절종을 치료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5 —

경부 방사선 조사 후의 갑상선 기능저하증 3례

전주예수병원 외과

박윤규 · 유정준
오성수 · 정율삼

악성 종양으로 인하여 경부에 방사선 조사 후 발생된 일차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3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I 과 II는 모두 남자로서 후두 유포피암으로 인하여 후두전 절제술 및 양측 경부 임파절 광범위 절제술(Wide-Field Laryngectomy) 후, 경부에 술후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경부 방사선 조사 후 각각 10개월 후 및 35개월 후에 안면 및 사지부종등을 나타냈으며 증례 III는 여자로서 좌측 유방암으로 인하여 광범위 유방절 제술을 시행 후 경부에 임파절 전이가 있어 방사선치료를 실시하였다. 경부방사선 치료 2개월 후 안면 및 사지 말단부의 부종과 피로감을 나타내었다. 모든례에서 진단후 갑상선 호르몬 투여로써 정상 회복되었다.

— ⑥ —

갑상선 종양을 제외한 경부중앙종물에 대한 임상적 고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김광문 · 조규종
최진우 · 박기현

경부의 중앙에 위치하는 종물로서 소아에서는 갑상설관 낭종(thyroglossal duct cyst), 유파낭종(dermoid cyst), 림프절 비대의 순으로 많이 발견되며 성인에서는 갑상선 종양을 제외하고는 유파낭종(dermoid cyst)이나 갑상설관 낭종(thyroglossal duct cyst) 등이 빈발한다. 이에 1985년 3월부터 1989년 9월까지 4년 6개월간 영동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은 외래 환자중 갑상선 종양을 제외한 경우 중앙에 위치하는 종물을 주소로 한 2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수술적 절개를 통한 조직 생검에 의하여 최종진단이 가능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경부 중앙 종물로 내원한 환자의 남녀비는 비슷하였으며(13 : 12), 남자에서는 소아가 53.8%(7/13)로 더 많았고, 여자에서는 성인이 75.0%(9/12)로 더 많았다.

2) 종물의 크기는 36.0%(9/25)에서는 크기의 변화가 없었고 36.0%(9/25)에서는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